

우리 아이를 글로벌 인재로 키웁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부모교육 실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6일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가족에게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만 0~5세 자녀를 둔 중국(12명)과 베트남(10명), 일본(2명), 라오스(1명), 필리핀(1명) 등 결혼이주여성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나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에서 한국어와 엄마나라의 언어 사용으로 보다 친밀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은 엄마나라 언어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올해 중국·베트남 이중언어코치, 부모교육,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 자조모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생태도시과,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덕진구 생태도시과(과장 정일)에서는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정복 교수는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소통하라"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소소한 마음가짐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좋은 기운을 얻어 진정성 있는 친절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도시과 정일 과장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번 친절교육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중심인 전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라선 폐선부지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철)가 16일 전주 이충지구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장을 찾아 현장인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진안 백운파출소,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는 16일 백운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과 교사, 자율방범대, 녹색야커니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어린이 예방에 힘을 모았다.

백운파출소는 봄 행락철을 맞아 매달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학대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베스트 강력팀 선발 표창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16일 2월 중 베스트 강력팀으로 선발된 강력팀 직원들과 함께 티 티임을 갖고 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력팀은 덕진경찰서 자체 평가에서 지난 2월 전주시내 병원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등 총 2건의 절도사건을 해결해 베스트 강력팀에 선발됐다. 강력팀의 활약에 힘입어 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2월말 기준)까지 대표적인 생활범죄 범인인 4대 강력범죄 검거율 81.7%를 기록하는 등 도내 1급서에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베스트 강력팀에 선발된 강력1팀은 팀원 1명 경찰서장 표창과 함께 3월 중 하루 팀원 전체 휴가가 주어진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베스트 강력팀에 선발된 강력팀 직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강력범죄 해결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이상직 의원, '자영업자 정책연대'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자영업자 정책연대 및 생존권 사수 출정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제갈찬근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이 의원은 평소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능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라며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지원기반 마련에 헌신해 이에 감사의 의미로 1천만 직능경제인과 720만 중소기업인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신발타는 법세가 나도록 우리 자영업자와 직능단체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헌신해주셨다"라며 "대기업의 남풍탄과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 국회통과는 물론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이 의원의 성과가 실로 막대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의원은 바로 이 의원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막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협상을 하는 건 국회의원이지만 이 모든 걸 실제로 해낸 건 바로 여러분이다"고 감사소감을 밝혔다. /신광영 기자



노송동 통장협의회, 기차촌경로당 찰밥봉사 펼치

노송동 통장협의회는 16일 관내 기차촌경로당을 찾아 찰밥 증식봉사를 실시했다.

통장협의회 송영인 회장은 "소외된 어르신들께 위안이 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지역사회 공헌과 경로효친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도 매분기별 관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장애인 보장구 부정수급 실태조사·변경제도 홍보

완산구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변경된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 중 의료기관의 당일 진료비 청구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약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현재 장애인보장구 4개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맞춤형 교정용신발)을 지원받은 수급자 522명을 대상(보장구 내구연한 미경과자)으로 본인 사용여부 확인 및 이용절차, 변경된 제도에 대해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당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발 혹은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조영우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에서부터 철저한 사후 확인과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시점에 사후점검을 통해 본인 사용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며 "제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새봄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15일 2016 AFC 챔피언스리그가 열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새봄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빛자석 안전띠 착용', 졸음쉼터 이용을 주제로 봄나들이철 안전운행을 당부하기 위한 행사였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경기 입장객에게 '응답하라! 빛자석 안전띠'가 새겨진 막대공전을 나눠줬다. 막대공전에 새겨진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은 지역 대표 프로팀 전북현대모터스의 아이덴티티 컬러와 같아서 지역응원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잘 다 잡았다는 평이다.

문명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국민행복 실천을 위한 더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해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안진근 영등한방병원장, 익산드림스타트 꿈나무 장학금 기탁

안진근 영등한방병원장이 익산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꿈나무 장학금 480만 원을 기탁했다. 16일 오전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장에서는 안진근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이번 장학금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많은 아동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동에게 2년간 정기 후원된다.

안진근 병원장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꿈나무 장학금 외에 영등한방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사업체는 익산시드림스타트(☎659-4232,4233)로 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시 완산동, 새봄맞이 전주천 대청소

완산동(동장 김길례)에서는 16일 자생단체, 직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새봄맞이 전주천 대청소'를 실시했다.

김길례 완산동장은 "3월은 겨우내 쌓인 먼지와 묵은 때를 말끔히 청소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주민 대청소 기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정비에 단전을 기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완산동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중양동, 민방위 지역특성화훈련 실시

중양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지난 15일 통장단 및 자생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성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삼계소생물 및 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실습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안전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나경욱 동장은 "비쁜 일장에도 훈련을 위해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과 소방서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안전교육이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한 국민안전처 최종수 서기관은 "기존 전국적 주민대피 훈련이었던 민방위 훈련이 중앙동 특성에 맞는 재난맞춤형훈련으로 진행돼 안전전환국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육군 35사단 검정고시반 총경고등학교 입학식

"가까운 길을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꼭 취득해서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최근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100여 명의 용사들을 대상으로 총경고등학교(사단 대입 검정고시반 별칭) 입학식을 갖고 2개월의 교육에 들어간다.

이날 입학식은 화창시절 어려운 가정환경과 한 순간의 짧은 판단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용사들에게 군 생활 동안 자기계발과 목표의식을 심어준다는 물론 전역 후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경고등학교에 입학한 용사들은 육군에서 교재를 지원받고 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강사와 임대 전 경험이 있는 용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오전 9시 1교시 수업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받는다. 아울러 사단은 장병들의 학업수준 차이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인원들을 위해 수업이 끝나고 저녁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과목별 소그룹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문제풀이반을 편성하여 1주일 간 수업 받은 내용에 대해 평가를 병행한다.

한편, 이번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100여 명의 용사 중에는 70여 명이 상근에 비하여 사단은 전라북도 지역 항토방위는 물론 지역 인재육성 등 전라북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월 23일 등록(법인)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우)350-97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제5호)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종영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9-6999
010-9985-4118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0-6865	임실지사 010-998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004
010-2333-9798	물북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4985	정읍지사 533-3367
서산지사 272-9417	고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9444	장수지사 010-382-2957
호주지사 010-9895-98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120-405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